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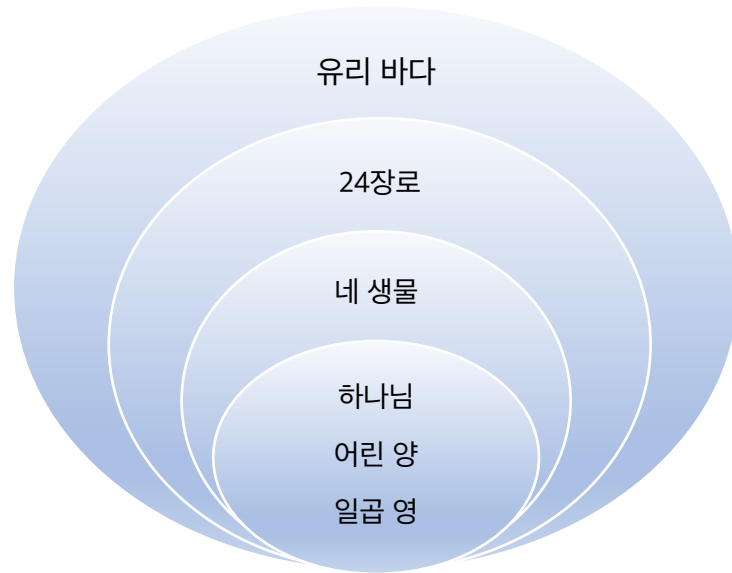
두 번째 환상: 천상의 교회(4-5장)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보좌에 앉아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게 된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천국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될 것’(3:21)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보좌에 앉아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환상은 앞 장의 일곱 교회 환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 환상이 지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환상은 구원이 완성된 천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1. 요한이 본 천국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다. 그 보좌에는 일곱 영과 어린 양도 함께 앉아 계셨다(22:1).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진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4:8)며 찬양하고 있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그 장로들은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1)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삼위 하나님

먼저 요한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목격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았고(4:3),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여기서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 즉 이러한 보석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낸다. 보좌에 둘러진 무지개가 이를 증명해 주는데, 무지개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더 살펴보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왔는데, 이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출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후에 우리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환상에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동반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8:5, 11:19, 16:18).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불타오르는 일곱 등불이 계셨다. 일곱 등불은 ‘일곱 영’으로 소개된다(4:5). 그런데 스가라는 일곱 등불을 ‘성령’이라고 소개한다(스 4장). 이때 요한은 이 스가라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의 통치와 구속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 사이에는 어린 양이 계셨다. 요한은 그 ‘어린 양’을 ‘일찍이 죽음을 당한’(5:6) 분으로 소개한다. 어린 양이 하나님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의해 하나님과 교회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12:13,14).

1)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모양의 얼굴을 한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있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선지자 이사야도 웃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거룩, 거룩, 거룩’ 하며 찬양하고 있는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를 보았다(사 6:1-3). 이는 곧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임을 증거한다.

네 생물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였다(4:6,8). 날개가 여섯 개라는 것은 번개 같이 빠른 속도를 가졌음을 말하며, 눈이 가득한 것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네 생물이 깊은 통찰력과 신속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인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네 생물은 왜 각각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이 네 생물의 얼굴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소는 희생하는 가축의 대표이며,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지금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다. 이는 네 생물의 핵심 역할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돕는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네 생물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마태는 왕(메시아)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참 하나님이신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 기록하였다. 이때 네 생물은 왕을 상징하는 사자, 종을 상징하는 소, 신성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은 왕 복음, 마가복음은 소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2)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24장로들은 모두 왕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이들이 제사장인 것을 보여 준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켜 ‘왕 같은 제사장들’

(벧후 2:9)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왕 같은 제사장인 24장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 환상 중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2:10), ‘흰 옷을 입게 해 주겠다’(3:5),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3:21)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지금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는 24장로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며 사는 존재인 것을 증거한다.

장로들의 수가 24인 것도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한다. 숫자 24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를 합친 수다. 이는 24장로들이 신.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흰 옷은 ‘의로움’의 표시로 이들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한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했다는 사실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한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만이 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뜻으로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백성인 것을 나타낸다.

3) 수정 같은 유리 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놓여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한 바다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장면’을 연상시킨다(출 24:10).

여기서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둘째 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님은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창 1:7).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로 칭하였는데, 바다는 ‘최악된 세상’, ‘악’, ‘심판’을 상징한다. 이에 반해 궁창 위의 물은 ‘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천국에는 악이나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었던 것이다(계 21:1).

이같이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땅에 속한 사단의 백성인 세상으로 나누신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나눔은 창조 첫날에도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고, 이 빛을 통해 낮과 밤으로 나누셨다. 이는 빛 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낮)과 사단의 자녀들(밤)로 나뉜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궁창 위의 물’을 뜻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천국 백성을 ‘수정 같다’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너무 티없이 맑고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리고 ‘유리 바다’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 맑고 투명하고 평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2. 4-5장의 주제

4-5장의 핵심 주제는 ‘천상과 천상의 교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게 될 모든 일들과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러하기에 4장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교훈한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모든 일들이 예수님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한다. 마치 공항 관제탑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일들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날 성도들 중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종말에 닥쳐올 심판에 대해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은 선과 악의 힘을 대등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감히 맞설만한 악한 세력들이 있을까?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우주의 모든 운명은 그 어느 누구도 막거나 거스릴 수가 없다(4:11).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되어가며, 또한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이나 재앙들에 대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 가지 재앙들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다.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과 환난과 재난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이다. 계시록의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를 보라. 이 땅에 내려지는 모든 재앙은 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이와 같이 세상에 임하게 될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세상의 죄악을 정결케하고 몰아내는 일종의 세척 작업이다. 즉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놓여 있기에 성도들은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